

# 미래의 길을 밝히는 '역사'의 가로등

## 《신의 지문》 《인간은 어떻게 거인이 되었는가》

이권우  
자유기고가

이미 흘러간 물은 결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러나 흘러간 물을 '역사'라는 댐 속에 모아 놓으면 교훈과 지혜라는 '전력(電力)'을 얻어낼 수 있다. 우리가 역사에 관심을 갖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세기말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역사는 다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를 갖는 듯하다.

그 원인야 여럿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게 설득력이 있을 법하다. 현대인들은 역사라는 댐에서 얻어낸 전력으로 미래라는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켜놓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 즈음 서점가에서 《신의 지문》과 《인간은 어떻게 거인이 되었는가》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 고고학적 수사관에서 종말론적 예언자로

오렌지 껍질이 알맹이와 떨어져 헐거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답은 명백하다.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껍질 전체의 위치가 마음대로 움직이게 된다. 그렇다면 지구가 오렌지처럼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지구의 표층 전체가 내부의 부드러운 부분은 그대로 두고 몇 번에 걸쳐 이동하게 될 것이다.

《신의 지문》은 이같은 현상을 가리켜 '지각이동'이라 이름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씌어진 책이다. 저자는 이 믿기지 않는 주장을 해명하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수사관의 자리에 임명한다. 수사관은 외친다. 보라, 지문은 곳곳에 남아 있는데 범인은 사라지지 않았는가. 여기서 말한 '지문'이란 흔히 우리들이 인류의 불가사의라 말하는 고대문명이다.

그런데 범인의 몸타주는 그려져 있다. '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적 상상력이 뛰어난 이 수사관은, 그 지문이 신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 독자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다. 신에게는 지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고학적 수사관이 나스카에서 시작하여 페루, 멕시코, 이집트로 이어지는 대장정 끝에 얻어낸 물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너무 많으므로 이 책의 역자가 추린 것만 다시 추렸다).



첫째, 2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제작된 여러 세계지도에 남극대륙이 그려져 있는데, 남극대륙이 발견된 것은 19세기였다. 특히 최근에 실시한 지진과 측정결과와 그 지도들에 묘사된 남극대륙은 거의 비슷하였다. 둘째, 1993년 지질학자들이 스팅크스를 조사한 결과, 이 유적이 기원전 1만5천년에서 기원전 1만년 사이에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 셋째, 1994년 이집트 기자에 있는 세 피라미드가 1만5천년 전의 천체도에 맞추어 건설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집트 뿐만 아니라 페루나 멕시코의 유적에서도 고도로 발달한 천문학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저자는 이같은 물증을 토대로 1만년전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을 주장한다. 플라톤이 말한 아틀란티스대륙은 존재하였으니, 그곳은 바로 남극대륙이었노라! 이 부분에서 뛰어난 고고학적 상상력을 가진 수사관은 어느덧 인류종말에 대한 묵시론적 예언가로 변신한다.

저자는 초고대문명의 존재를,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며 인류를 파괴하는 대재해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후세에 알리고자 하는 선인들의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파멸은 미래의 어느 때든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따라서 "충분한 대비가 없으면 인류는 고아처럼 진정한 유산을 완전히 잃은 채 원시시대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자는 그 해답이 다음과 같은 호피족의 신화에 숨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최초의 세계는 인류의 잘못 때문에 하늘과 땅에서 나온 불이 모든 것을 태워서 파괴되었다. 두번째 세계는 지구의 축이 뒤집어져 모두가 얼음으로 뒤덮였다. 세번째 세계는 대홍수로 끝이 났다. 현재는 네번째 세계이다. 이 시대의 운명은 인류가 창조주의 계획대로 행동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저자의 결론은 과학적 검증 가능성을 떠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해답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고대 유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당연한 말이지만, 저자의 고고학적 상상력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과학적 해명이 있기까지 기존의 설을 지지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독자 개인의 선호도에 달려 있다.

### 시적 문체로 씌어진 인류통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한편의 커다란 책이다. 지각의 각 지층과 퇴적층은 그 책의 각기 다른 페이지다. 우리는 마지막 페이지에 해당하는 맨 위의 종이 위에서 생활하고 있다. 첫 페이지는 대양 밑바닥이나 대륙의

지층 깊숙한 곳에 있다."

일리인의 적절한 비유처럼, 이 책을 읽어가는 것은 지구의 역사를 읽는 행위이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인간은 정작 책의 맨 마지막 장에 나타난다. 그것도 난쟁이라는 누추한 모습으로.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은 이 책의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저자가 된다.

국내 독자와 친숙한 일리인과 그의 부인 세갈이 함께 쓴 《인간은 어떻게 거인이 되었는가》는 우리를 인류사라는 대양에서 편안하게 헤엄치게 한다. 이 책은 대부분의 독자들을 괴롭혔던 학생시절 체험과는 색다른 경험을 겪게 한다. 세계사 시간을 지루하게 만들던 어려운 역사용어나, 연대를 외워야 할 필요 없이, 그저 일리인의 안내를 따라 물흐르듯 읽어나가다보면 어느새 인류사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이르게 된다.

특히 "인간들은 물이 뒤덮은 마을을 버리고 떠났다. 건조물은 물속에서 썩어 무너져 버렸다. 전에 제비가 찾아오던 지붕 위를 물고기들이 떼지어 헤엄쳐 다녔다. 입을 벌린 집의 문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꼬치 고기가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나왔다. 화로 옆에 놓인 의자에서는 가재가 수염을 움직이고 있었다. 폐허는 진흙뿔로 뒤덮이고, 모래에 파묻혀 버렸다"는 문장에서 볼 수 있는 일리인의 시적 문체는 이 책이 갖는 강점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단순한 에피소드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책의 제목에

# 인류의 조상이 남긴 숨결

## 《최초의 인간 루시》를 읽고

주일우 · <이다> 편집동인

서 알 수 있듯, 저자는 인류의 진보라는 사관에 입각하여 인류사를 재해석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자연과의 투쟁 뿐만 아니라 사회의 통제와 속박, 그리고 기존의 사상체계에 벗어날려는 인간의 끝없는 노력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그 일단을 우리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저자의 평가에서 읽을 수 있다.

저자는 한 사상가에 대한 평가는 정신의 장점이나 결함에 따라 가늠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진보를 도왔는가 혹은 방해했느냐에 따라, 즉 “그는 인간이 자라서 거인이 되는 것을 도왔는가?”를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한다. 이 측면에서 볼 때, 소크라테스는 자유를 사람들을 언짢게 취하게 만드는 강한 술이라 여겨 민주주의를 반대하였고, 자연에 대한 연구를 반대하고 자기의 영혼을 알라고 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평가한다.

### 전통인식에 바탕한 역사서 기대

‘쉬우면서 재미있고, 깊이도 있는’이라는 까다로운 독자들의 주문을 충족시켜주는 뛰어난 역사서이다.

번역서를 읽고 나서 늘상 하는 푸념 하나. 우리 필자가 쓴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같은 생각을 또다른 의미의 ‘신도불이’ 타령이라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 우리 필자란, 우리의 문제의식으로 인류사를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이 두 종의 책은 우리에게 자연을 인류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거인’의 사관이나, 종말론적 위기감을 극복한 새로운 인식들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상생(相生)’의 철학이 아닐까. 그리고 이 상생의 철학이야말로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들이지 않은가. 신도불이의 작가를 거듭 고대하는 진정한 이유다. ❖

《신의 자문》(상·하)

그레이엄 헨콕 지음/이경덕 옮김  
짜치/A5신/각권 716면 내외/각 7000원

《인간은 어떻게 거인이 되었는가》(전 3권)

일리인 지음/민영 옮김  
일빛/A5신/각 360면 내외/각 7000원 내외

삼천포 바닷가에는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있다. 무심히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발자국을 통해서 사람들은 오래 전에 이곳에 살았던 공룡들을 만난다. 화석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문외한도 쉽게 나란히 찍혀 있는 크고 작은 발자국에서 어미와 새끼가 평화롭게 산책하는 정경을 그려보거나, 큰 발자국 앞에서 갑자기 사라진 작은 발자국에서 잡아먹힌 녀석의 비애를 느껴볼 수 있다. 수억년 전의 발자국이 시간을 넘어와 눈앞에서 숨을 쉰다. 《최초의 인간 루시》(이충호 옮김)를 읽으면 바로 이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더구나 그것은 인류의 조상이 남긴 숨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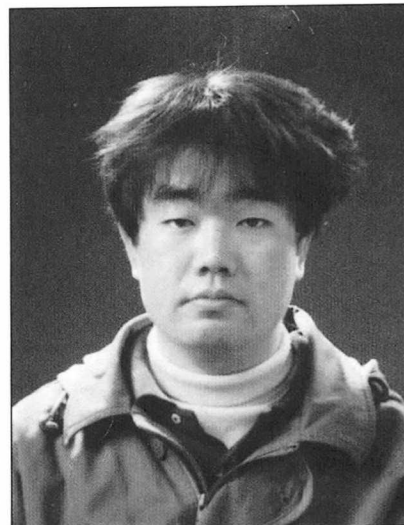
이 책에서 고인류학자 도널드 요한슨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호미니드(hominid: 직립 보행을 한 영장류)의 완전한 화석인 루시를 발견하고 그것을 근거로 인류의 기원을 밝혀가는 과정을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자전적인 글들이 그렇듯이 이 책도 저자의 솔직한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지만 많은 편견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요한슨은 리키 가족, 브롬, 다트, 하웰과 같은 고인류학계의 여러 인물들을 때론 과격하게, 때론 고지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들 중 몇몇은 이런 평가를 부당하게 여길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요한슨은 리치드 리키가 인간은 다른 영장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선입관에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는데, 오히려 리키는 《인류의 기원》(동아출판사)에서 그런 형이상학적 전제를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편견에만 조심하면서 읽는다면 이 책은 꽤 정확하고 친절한 고인류학 입문서인 셈이다. 고인류학자들이 화석을 찾기 위해서 첫번째로 하는 작업은 화석을 발굴할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다. 여러번의 지각 변동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화석이 속한 시대의 지층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한다. 지층의 연대를 결정하는 작업은 꽤 복잡하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기준이 되는 화석을 찾아내는 방법을 함께 이용한다. 오랜 시간 존재했던 돼지들의 이빨과 같은 것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은 시간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장소가 결정되면 고인류학자들은 그곳을 땅만 바라보면서 끝없이 걷는다. 요한슨이 여러번 강조하듯이 화석을 발견하는 행운이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노다지를 찾아 헤매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미신을 과학자로 자처하는 고인류학자들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화석이 발굴되면 그 의미를 찾는 작업이 시작된다. 인류의 역사, 더 나아가 생물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퍼즐 맞추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 갖



주일우씨.

가지 편견들이 개입되고 이런 이데올로기적 편견들이 전혀 다른 해석과 이론을 낳는다.

며칠 전 학술지에 실린 영장류가 아닌 토끼가 인류의 조상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의 주장은 세포내의 단백질 분자들의 유사성만 놓고 보면 원숭이보다 토끼가 사람과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토끼가 인류의 조상이라면 인류의 발상지는 아프리카가 아닌 북유럽일 것이라고 강변한다. 이 주장은 미개한 아프리카에 자신들의 조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유럽인들이 반복해서 주장해 왔던 것들의 현대판이다. 여러가지 입장들이 하나의 뼈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고인류학의 이야기는 과학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 요한슨의 발굴 현장을 실험실로 바꾸어 놓기만 하면 그가 한 작업의 성격은 물리나 화학에서 하는 작업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은 과학에서의 성공에는 행운의 여신이 함께해야 하고 편견에 근거한 여러 입장들이 대립하고 있기도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견고하고 논리적으로만 보이는 자연과학의 허점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시대의 신화가 되어버린 자연과학의 흔들거림을 맞보는 일, 이것이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

푸른숲/A5신/460면/9800원

